

신안군, '섬 겨울꽃 축제' 성료

지난해 12월 9일부터 1월 31일까지 마무리
대한민국 대표하는 겨울꽃 축제로 우뚝 서



신안군은 지난해 12월 9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압해도 1004섬 분재정원에서 열린 섬 겨울꽃 축제가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고 밝혔다.

"1004섬, 애기동백으로 물들다"라는 주제로 열린 섬 겨울꽃 축제가 전국에서 여행객들이 6만여 명이 다녀갔다. 축제장에는 애기동백꽃을 주제로 만든 포토존이 운영되었

고, 관람객들은 새해 소망을 적어 나무에 거는 '소원지 쓰기'와 느린 우체통에 넣은 겨울꽃 엽서를 여름꽃 축제에 맞춰 받을 수 있는 '나에게 보내는 엽서 쓰기' 등의 체험활동에 참여했다.

또한, 저녁노을미술관에서는 '섬 겨울꽃 회화전'이, 축제장에서는 신안군 농수특산물과 애기동백 기념품을 판매하였다. 특히, 애기동백 숲 정상 카멜리아 카페와 분재 유리온실 내 천년 주목 쉼터에 설치한 음료 무인 판매대가 양심가게로 운영되면서 꽃과 분재를 사랑하는 관람객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이 아름답게 피어났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50여 일간 진행된 섬 겨울꽃 축제가 함박눈이 펄펄 내리는 겨울바람 속에서도 전국에서 많은 관람객이 찾는 명실상부한 겨울철 대한민국의 대표축제가 되었다"라고 말하며 "추위에도 불구하고 신안군을 방문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4천만 송이 애기동백꽃 속에서 아름다운 추억이 되었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1004섬 분재정원에서는 2023년에도 봄꽃분재 전시, 여름꽃 크로코스미아 축제, 가을 대한민국 분재 대전, 겨울꽃 애기동백 축제를 준비하고 있다.

신안=이덕주기자

무안군,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서면심의 개최

의료급여수급자 의료비 부담 완화 및 의료보장체계 강화

무안군은 1월 30일 의료급여 수급자의 의료보장체계 강화를 위한 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의료급여 수급자가 중증질환, 만성질환 또는 장기 입원 등으로 불가피하게 의료급여를 받아야 할 사유가 발생하여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상한 일수를 초과한 경우 대상자의 질환, 의료급여 사제관리 내용, 진료내역, 진단서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료급여일수를 연장 승인하여 주는 기능을 한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의료급여 상한 일수를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아야 하는 수급권자에

대한 연장승인 신청 136건과 여러 의료급여기관 이용에 따른 병용금기 약물처방 및 중복투약으로 위해 발생 가능성이 높아 선택의료급여기관을 지정하는 수급권자에 대한 조건부 연장승인 신청 69건을 심의하고 원안대로 의결했다.

현재 무안군 의료급여 대상자는 2,001명으로 대상자들에게 의료급여 제도를 안내하여 적절한 의료이용을 유도하고 대상자의 건강관리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상담을 제공하여 무안군 의료급여 수급자의 의료급여비용 절감과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무안=이기성기자



영암군, 취학전 학부모교육 (미리 SCHOOL 배움터) 운영

영암군가족센터(센터장 송영희)는 영암교육지원청과 연계하여 2023 다문화가족 취학전 학부모교육 '미리 스쿨 배움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학부모연수 형태로 운영되는 해당 교육은 2월 14일과 15일 양일간 19시부터 2시간 동안 진행되며, 14일에는 삼호읍 가족센터에서 15일에는 영암읍 교육지원청에서 각각 열린다. 특히 가족센터에서 열리는 14일 교육에서는 동행자녀를 대상으로 '신나는 작은 학교 배움터'도 마련했다.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안정적인 학교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미리 스쿨 배움터' 학부모교육은 현지 초등학교 교사가 전하는 발달단계에 따른 자녀 양육법 교육과 학교생활에 대한 궁

급증 해소를 통해 취학전 준비사항과 학부모의 역할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자녀의 성장에 따른 부모성장을 돕고, 자녀와의 의사소통, 자녀교육 지도방법, 학부모 간 정보교류 등 부모역량 강화를 위해 기획된 이 프로그램은 취학전 예비 학부모의 부담을 덜고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을 돕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미리 스쿨 배움터' 학부모교육은 다문화가족뿐만 아니라 관내에 거주하는 취학전 아동을 둔 학부모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를 희망하는 가족은 영암군가족센터 홈페이지(yeongam.familynet.or.kr) 또는 전화(061-463-2929)로 문의·신청하면 된다.

영암=조대호기자

목포시, 전라남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공모 선정

도비 2억 5천 확보, 지역특화산업 중심의 취업·창업 지원

목포시가 전라남도 주관의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공모에 2개 사업이 선정돼 도비 2억 5천만원을 지원받는다.

선정 사업은 '지역특화산업 중심의 일자리 지원사업'과 '스마트 문화관광 청년·신중년 창업 지원사업'으로 시는 도비 포함 총 사업비 3억 6천만원을 투입하게 된다.

'지역특화산업 중심의 일자리 지원사업'은

대양산단과 세라믹 산단 등 목포시 산업단지 내의 중소기업 중심의 구인기업 및 구직자를 중심으로 구직자 심층상담 및 중소기업 인식개선을 통한 미스매칭률을 최소화하는 취업연계 사업이다. 주요 취업처는 대양산단 등의 수산업, 식품제조업 분야의 기업이다.

또한, '스마트 문화관광 청년·신중년 창업 지원사업'은 목포상공회의소와 협업해 추진하

는데, 18~60세의 청년 및 신중년 대상으로 전문교육 프로그램 운영, 초기 사업비 지급, 창업 컨설팅 진행으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창업 성공률을 높이는 사업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구직자와 구인기업의 맞춤형 일자리 연계로 미스매칭을 해소하고 우리 시 청년·신중년들의 취업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목포=기동취재본부

함평군, 한파·대설에 따른 양파 피해 주의 당부

함평군 농업기술센터가 대설·한파로 인한 양파 피해 최소화를 위해 농작물 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최근 평균기온이 영하로 내려가는 등 매서운 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올해 함평군 평균 기온은 0.3°C로 평년 0.9°C에 비해 낮아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겨울철 날씨가 춥고 비가 많이 올 경우 양파는 서릿발 피해를 받을 수 있다. 토양 내 온도가 0°C 이하로 내려가 수분이 동결되면 토양이 팽창하는데, 이때 뿌리가 솟구쳐 올라와 피해를 받게 된다.

이러한 동해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선 눈, 비가 온 후 포장에 물이 고이지 않게 배수로를

20cm 이상 깊게 조성해야 한다. 이미 서릿발 피해를 받은 양파는 뿌리를 흙에 다시 꽂아준 후 잘 복토하면 생육이 재개될 수 있다.

박은하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고품질 양파 생산을 위해 겨울철 기상 상황을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현장 기술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함평=김광훈기자

영광군, 2023년 봄철 산불방지대책본부 본격 가동

영광군은 건조한 봄 날씨와 영농 활동 재개로 산불 발생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104일간 봄철 산불방지 종합대책본부를 운영하여 산불방지에 총력을 다한다고 밝혔다.

군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산불 예방과 진

화를 위해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52명을 선발하여 분청에 2개 조 10명, 11개 읍·면 상황실에 42명을 배치했다.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은 각 마을을 순찰하여 영농 부산물 및 쓰레기 불법 소각 행위에 대한 단속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영광=서희권기자

아세요?
한수원이 요즘 바쁜 이유

온실가스를 없애고
미세먼지는 줄이고
기후변화까지 막는
지구를 살리는 바른 에너지를
세계 곳곳에서 만들고 있거든요

**한수원은 지금
바른 에너지 개발로 열일 중**

한국수력원자력주